

## 내 이름을 아는 자 시편 91:1-16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배 되길 바란다. 보통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육신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증인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에 대한 답이다.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강조하는데 육신적인 것 없이 살기 힘들다. 우리의 많은 육신적 증거 또한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정리하는 시간되길 바란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견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든지 높아지길 원한다. 낮아지길 원하는 것도 더 높아지기 위함이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 오늘 말씀하셨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지 아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름만 아는 게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 그것을 지금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를 끝내신 분. 그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내용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는 죽으심과 피흘리심으로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모든 것로부터 터 되받아 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언약이다. 물고기가 물로 완전히 돌아가는 답이다. 이런 분이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자,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잡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저주에서 건질 것이다. 건지시는 것이다. 그가 문제를 당하였고, 환난 중에 있다면 내가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다. 이 이름의 권세를 깰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무엇이 이 이름의 권세를 넘어설수 있겠는가? 그래서 절대 권세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이름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였다. 약속의 피 예배이다.

### 1. 내 이름을 아는 자

14절에서 가져온 제목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견지리라,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냥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망대같이 우뚝 서서 멀리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나의 복음의 영향력이 땅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수 있는가? 할수 있다. 그 이름의 내용을 알면 할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엄청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신다. 3절에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견지신다는 것이다. 울무로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신다는 것이다. 울무 많다. 형제도 울무, 내 생각, 병, 자녀, 영적, 육신적 울무가 많이 있다. 내가 그를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져낼 것이다. 조건이 뭐가? 내 이름을 알면, 내 아들의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그 울무에서 건질 것이다. 5절과 6절에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너의 인생에는 이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7절에는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옆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조건은 니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내 아들이 너의 인생에 무엇인줄 아냐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왼편에서 천명이, 오른편에서 만명이 무너져도 너에게는 이 재앙이 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8절에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너에게 악한 자는 나에게 악한 자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게 내가 하는 보응이 무엇인지 니가 너의 눈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한 방패이다. 분명히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니까 똑똑히 보라. 9절에는 이런 축복이 임할 조건을 말하고 있다. 니가 말하기를 여호

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말이 1절에서부터 나온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을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의 아래에 살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질 것이다. 전에는 심한 전염병이 아니고 극한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었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었다.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100%의 단어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 성경에는 극한 전염병, 끝까지 가는 전염병으로 번역했다. 이번에는 심한이라고 하니 약간 틈이 생긴다. 심한 위에는 더 심한도 있고, 더더더 심한 것도 있으니. 여하튼 니가 이렇게 되면 너의 인생을 사냥꾼의 울무에서 견지겠다. 그리고 극한 전염병이 너에게는 없다. 그리고 천명이, 만명이 니 옆에서 옆드려져도 너는 괜찮아. 너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니가 똑똑히 보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할 것인가? 그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너무나 간단하다. 그의 약속의 피 안에 있으면 되고 피제사 안에 있으면 된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러나 그 약속의 피 안에는 완전 언약이 들어 있다. 이것을 진짜 생명을 걸고 올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약속한 그대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절대 안 써도 된다. 땅끝까지, 죽음때까지 가게 된다. 답안 사람이다. 이 언약을 맛 본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자꾸만 다른 생각으로 섞인다. 이 섞이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것도 그리스도, 약속의 피이다. 아는데 왜 안되는가? 그리스도가 잘 안되는 것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신다. 특별한 약속이 아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했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사냥꾼의 울무에서 너를 건진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그 울무에 갇혀 죽는데, 살려주신 것이다. 너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천명 만명 쓰러져도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약속의 피로 이미 저주에서 해방이야. 약속의 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너를 높이지. 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거 아니냐? 왜 죽도록 거기 두겠냐, 거기에. 이미 있던 약속들이다. 그것을 조금 다른단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미 우리가 믿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던 것이다.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이 약속대로 하는 것이다. 니가 죽을 이유는 없다. 내가 죽는다. 이게 창세기 15장이다. 왜 니가 죽으려고 하나?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너는 죽는게 아니야, 내가 죽고 너는 증인되는 것이다. 착각해서 자기가 죽으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너는 내가 이론 것을 누리라는 것이다.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거 아니냐.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대단한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신 약속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인생중에 진짜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라.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것이다. 계속 더 깊어질 것이다. 영적으로 더 누리질 것이고 더 평안해 질 것이다. 이 평안과 능력은 모든 영적 문제를 싹 없애버린다. 정신병 따로 치료하고 우울증을 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처럼 공황증 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로서 끝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약속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안되냐? 니가 이거 안해서 안돼. 나는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쳤고, 안되는 때로 없다. 그것이 내 피야. 그게 나의 죽음이야, 너는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11절에는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니가 내가 누구지 알게 하겠다. 13절에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니가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니가 내 아들의 이름을 알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이름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니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와 함께 하고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를 땅에서 오래 살게 하고 그의 인생에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내 구원 약속의 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놀라운 일이다. 눈물날 일이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중에서 견지고 그의 인생에 만족하게 하겠다.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필요 없다. 다른 것은. 이것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원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약속의 피면 끝이다. 다르게 더 필요인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지존자의 그늘에 살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자동으로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며, 그리스도를 누리면 자동적으로 그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손을 못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누리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며 사단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그리스도 약속의 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많이 봤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는 증거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남이 끝까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 우리가 하나. 이 복음으로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자와 뱀을 밟으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많이 나타났다. 나는 가끔 이리다가 나의 인생도 작품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오늘 본문 같은? 성경에는 많이 있다. 교회사에도 많이 있다. 우리도 이것을 향해 가고 있다. 모세는 원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쓴 것이다. 이 모세가 호렘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았다. 너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라. 이 언약을 받고 애굽과 광야에서 이 말씀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 약속의 피를 바른 그날, 민족이 400년만에 해방되었다. 왜 출애굽을 하는가?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약속의 피를 회복해야 하는데 노예로 있을 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회복할 약속의 피를 바르는 그 날 하나님이 애굽을 죽여버렸다. 애굽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기도 경신을 못 차리는 것이다. 3일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아무도 배가 고파 죽은 사람 없고,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 없다. 모세 개인의 기도에 전부 하나님이 응답해주셨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항상 거기서 견져주셨다. 그리고 늘 그는 선택된 하나님의 종으로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를 통해 해주시는 그의 말씀이 항상 성취되게 하셨다. 그를 장수하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의 앞길에 항상 천사를 파송해주셨다. 모세만 이렇게 해주셨는가? 우리도 능히 가능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으나 결국 애굽을 정복했다. 왕도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환난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모든 사냥꾼의 울무에서 그를 견져주셨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면 전부 다 죽는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이 대신 다 죽었다. 그야말로 악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응을 똑똑히 보았다. 그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남이 끝까지를 기도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미국에 교회를 살려야 한다,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언약을 잡은 교회이다. 우리가 100팀이 아니고 1000팀, 만팀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2만명의 제자가 일년 내내 남미를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일이 10년, 10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은 뜻이다. 이것을 위해 남미끝까지 가면서 나라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 일을 대를 이어 할수 있도록 교회와 현장에서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때 누구든지 생각할 것이다. 우리도 본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 우리를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지신 결과이다. 만일 그냥 두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진 결과 아니겠는가? 그냥 두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천명이, 만명이 좌우에서 쓰러지는데, 우리도 쓰러지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그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 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헛된 소리인가? 아

니면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이면 되는건가? 지금 나의 삶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가? 우리의 선택에 있다.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면 인생이 본문처럼 반드시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한 것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생각해보라. 대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다.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해도 소용없지만. 우리가 매일 이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이다. 필요없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한 것을 매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간다. 안하고 있으면 내가 안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도 모세처럼 된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적어도 작은 모세가 되고, 작은 요셉이 될 것이다. 적어도 작은 다니엘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영적 문제이고 내가 할 일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는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약속의 피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라고 매일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자만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있는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도바울처럼 어떤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보서는 안된다. 어떤 사건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내게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고, 또 영적문제이고 원죄라는 생각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은 50%밖에 안된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눈이 맞아야 한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였다. 문제 속에는 물론 내 잘못이 들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책임을 묻고 벌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 하나님은 원인을 말하고 있다. 실수는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원인은 사단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다 완벽하다. 완벽한 해결책이 뭔가? 죄를 용서해주는 것도 아니고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 영적인 눈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견져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사단의 나라를 꺾으실 것이다. 왜 할필이면 우리를 보고 사자와 뱀을 밟으며라고 했겠는가? 그냥 땅을 밟으며 하면 너무나 이해가 쉬운데. 사자와 뱀을 밟는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내 이름을 아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였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오래동안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 각자 개인의 인생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만족하는가? 생각해보고, 언약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구원이 뭔지 평생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냥꾼의 울무가 절대 너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구원을 보여주겠다. 천명이 무너지고 만명이 무너져도 너에게 이런 재앙이 없다는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니가 사자와 뱀을 밟고 승리하는 모습, 그것을 너의 인생에 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봐. 응답 안되는게 있는가? 내가 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실이다. 어느날 말한 것이 아니다. 여기만 말하고 다른 성경에 없다, 이것도 아니다. 이미 처음부터 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이야기다. 계시록이 뭔가? 그 시대의 저주에서 나는 너를 건진다는 것이다. 세상에 회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건지는 것이다. 이 축복을 다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언약잡고 뱀의 머리를 깨고 살아나고 높아져야 한다. 모든 것 정복해야 한다. 이 축복을 받기 바란다.